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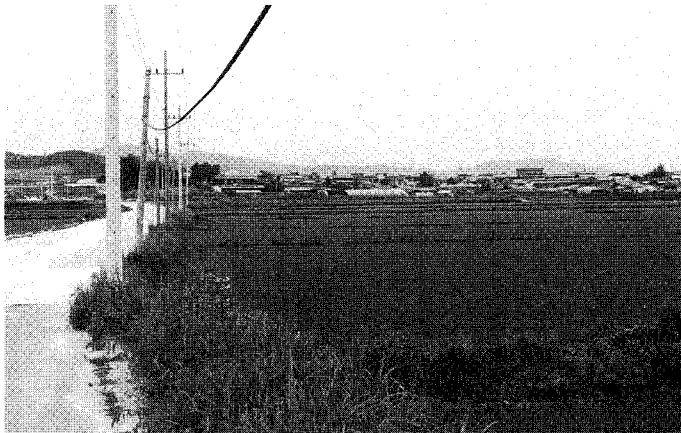


농가소득증대와 쌀 안정생산에 최선을 다할터

“우 리 소로단지가 전국에서 최우수단지로 선정된 것은 대단한 사건이며 지금 생각 해도 감개무량합니다”. 지난해 12월 쌀농사에 큰 공을 세운 우수 시·도와 시·군 및 농가에 대한 시상식에서 쌀 생산비 절감 최우수단지로 선정되 대통령상을 수상한 소로단지 任萬赫회장의 뿌듯한 소감이다.

모든 조건이 벼 재배에 최적인 충북 청원군 소로리는 예로부터 쌀농사가 발달한 곳으로 원예 및 과수농가는 극히 드문 지역이다. 청주와 근접생활권인 소로단지는 정부가 추진하는 쌀의 안정적 생산대책에 적극 호응하기 위하여 대단위 쌀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양질다수성 품종재배, 객토 등 땅심높이기, 병해충의 적기예찰 및 종합방제 체제 구축 등으로 단위면적당 쌀생산비의 획기적인 절감실현과 다수확을 이룩하였다.

지난 65년에 경지정리를 하였으나 95년도에 100% 경지정리를 실시하여 벼농사의 완전 기계화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으며 인근 옥산 RPC와 연계하여 가공, 판매까지 일관된 영농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벼농사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청주로부터 20km 떨어진 청주~옥산국도와 경부고속도로가 맞닿는 지점에 위치한 소로단지.

任회장을 중심으로 한 소로단지는 72명의 회원과 행정·지도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합심 노력하고 밀식재배와 철저한 병해충 방제로 10a당 쌀 생산량이 일반재배보다 155kg이 늘어난 669kg 이었으며 쌀 생산비도 전국평균보다 45%(571원/kg)나

절감하였다.

任소회장은 또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는 농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과 같은 농촌 일손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약없이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며 효과적인 병해충 및 잡초관리는 필수적”이라고 덧붙인 뒤 “완벽한 병해충 방제 및 잡초 제거를 위해 단지 병해충 방제단을 중심으로 예찰을 강화하고 예방위주로 연 5회 정도 방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농기계 부식방지 및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효율적 공동관리를 위해 100평



1만2천평의 논을 경작하고 있는任회장은 26마리의 젖소도 기르고 있는데 최근 사료값 상승과 우유 소비 부진으로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다고.

규모의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를 설치하는 등 농기계 점검정비를 철저히 관리운영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같이 치밀한 영농계획 수립과 평당주수 확보, 병해충 및 잡초의 적기방제, 영농의 기계화 및 일관화 작업을 통한 회원들의 열성과 노력이 어우러져 소로단지가 97년 생산비 절감 최우수단지로 선정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쌀의 안정적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농약정보**

증산왕 인터뷰



소로단지 任萬嫻 회장

현행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견해는?

전체적으로 국가경제가 어렵지만 직접지불제 확대 실시 등 쌀만큼은 자급할 수 있는 농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전에는 농기계구입 보조금 등의 지원이 있었는데 근래에는 사실 농기부채상환 연장 등 몇몇을 제외하고는 피부에 직접 와닿는 정책이 없어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귀농붐이 일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농촌의 위상은?

‘농업인이 진정한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곡물재고량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위기상황에서 한해만 쌀농사 흉년이 된다고 기정해 보십시오.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겁니다. 그나마 연이은 풍년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쌀 등 곡물류의 재배 면적 확보와 증산은 국가식량안보 차원에서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하루하루 주어진 농사일을 열심히 해나가는 것 외에 농촌에서 특별히 계획이랄 것이 있겠습니까. 다만 도시지역에 비해 낮은 농촌지역의 소득이 좀더 향상되었으면 합니다.